

신안군, 압해도 갯벌 일대 철새서식지 안정화 추진

봄·가을철 쉬어가는 중요한 중간기착지

효과 입증된 해안펜스 2200m 연장 설치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이동경로인 압해도 대천리 갯벌 일대에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해도 일대 갯벌은 봄, 가을철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도요·물떼새류들이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다. 압해도 갯벌은 이러한 철새 서식지로서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EAAFP: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에 등재되었다.

군은 철새들이 안정적인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해안펜스(가림막) 200미터를 시범 설치하였다. 압해도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조류들은 만조가 되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모니터링 결과 해안펜스가 설치된 방조제와 모래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해안펜스가 조류들에게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효과적임을

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철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4개 지점에는 압해도 갯벌과 모래톱의 중요성, 멸종위기 조류 등을 소개하는 생태안내판을 설치하였다. 해안펜스에도 압해도를 찾는 철새들의 사진을 부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에 군은 서식지 안정화 효과가 입증된 해안펜스를 올해 200미터 연장 설치하여 철새 서식지 환경개선에 힘쓰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설은 향후 압해도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정지역인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



어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

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발급비 지원

무안군은 5월 1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보건소가 아닌 무안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관내 4개 의료기관(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남악은누리내과의원, 남악하나내과의원, 남악복음내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인 3,000원만 지불하면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발급 비용은 무안군에서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타 시군들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건강진단서 발급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기능개선 구상 용역 중간보고 개최

목포시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대개조를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지난 4월30일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구상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방안 ▲목포역사 신축방안 대안 제시 ▲시민의 숲 광장 조성 ▲통합환승센터 설치 ▲주차장 조성 방안 ▲기타 부대시설 및 여객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참석자들은 목포역사 신축방안의 대안별 전략과제들에 대해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의견을 나눴다. 시는 구체화된 의견은 시민 의견수렴, 관계

기관 협의, 자문단 회의 등을 지속 실시해 실행력을 강화한 후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종식 시장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목포역을 목포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시는 타당성 있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중앙부처,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역은 지난 1913년 개통한 이후 1979년 7월 신축된 뒤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됐다. 하지만 노후되고, 비좁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경찰, 농촌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치안활동 추진

보행기(유모차)운전 어르신 야광조끼 배부로 사고예방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농촌의 특성상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유모차 및 전동차를 주 이동 수단으로 국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제고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배부 등 교통약자 배려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많은 어르신들이 유모차 및 전동차를 이용, 참여를 하고 있으나 농촌

의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 모두 마를 앞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인 반면 인체 등의 형상 부재로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 야간 이동시 등에 시인성 부족으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사고예방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야광조끼는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이 높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정환수 서장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예방 대책 수립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교통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영광군, 양파·마늘 농가 대상 구비대기 수분관리 당부

영광군은 최근 한달(5.1~4.1) 누적 강수량이 41.1mm로 평년대비 52%에 불과하여 양파, 마늘 등 밭작물의 품질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구비대기 포장관리 방법 홍보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파·마늘의 수확량은 양파 구비대

기가 시작되는 5월 구비대기의 병해충 방제와 물관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7~10일 간격으로 오전 중 30~40mm정도 관수를 실시하여 비료와 수분의 흡수가 원활하게 해주어야 고 품질의 양파·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웃거름을 5월 웃거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후기까지 웃거름을 사용할 경우 구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생장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장 중 부패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균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 할 경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준수해 농약잔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가뭄과 이상기온이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대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STOP'

영암군은 10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범규위반행위 계도활동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불산단과 삼호읍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대의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 활동과 집중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어디든지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 ①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②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③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④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⑤ 현관앞 햇빛가림막 이가림막 차양형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

Solar Solution
SUNTEAM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 | 접수 | 방문 | 상담 | 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